

제 1회 파라과이 아버지학교

“아버지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16년 4월 26~28일, 현지인 목회자 부부 대상 - 총 28부부 참석)
(2016년 4월 29일~5월 1일, 재파 교민 대상 - 총 28부부 참석)



1995년 10월, 한국 두란노서원에서 개설하여 2015년까지 전 세계 63개국 256개 도시에서 30만명 이상의 아버지들이 수료한 [아버지 학교]가, 파라과이에서도 그 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섬기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에서 26명의 강사, 스태프들이 파라과이를 다녀갔습니다. 현지인 목회자 부부 28쌍이 참석하여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를 수료하였고, 한인 교민들을 위한 과정도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19세기 말, 파라과이는 3국 동맹 전쟁*을 치르는 동안 성인 남자의 90%가 전사하여 전후 남녀 성비가 1:8까지 무너지게 되었고, 가정이 붕괴되면서 ‘아버지가 없는 나라’의 아픈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3국 동맹 전쟁:**
1864~1870년에 걸쳐 파라과이가 주변 3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동맹국과 치른 전쟁으로 파라과이가 패전함.
영도상실, 인구급감(60%가 사망) 등으로 국가발전동력을 잃어버려 경제빈국으로 전락하게된 계기가 되었음.

이를 두고 오랜 기도 끝에, 드디어 현지인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제1회 파라과이 아버지 학교’가 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치유와 가정의 회복을 경험한 목회자들의 간증이 이어지면서 [파라과이 아버지/어머니 학교]를 위한 모임이 조직되었고 <제2회 파라과이 아버지 학교>가 열릴 수 있길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생기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생긴다.”

제 20차 인디언 추장학교

[EDELIN, 에델린]

Newsletter (2016년 12월) p. 2

“절망의 긴 터널 끝에 보게 된 소망의 열매”

(2016년 10월 31일 ~ 11월 4일)
-총 78명의 추장들 수료-



파라과이 성경을 들고 단체사진 (수료식)



*지난 12년 동안 20차례의 추장학교를 통해 변화되어가고 있는 추장들

2004년 5월, 무표정한 얼굴로 우두커니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추장들과 함께 인디언 추장학교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복음의 능력으로 추장들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전심으로 찬양 드리는 모습, 추장학교를 위해 자발적으로 종족별 대표를 뽑아 조직하고 협력하는 모습, 추장학교 최초의 추장들만으로 꾸러진 연극공연 등... 이번 20차 추장학교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비록, 추장학교를 앞두고 내린 큰 비로 많은 추장들이 참석하지 못했고, 잦은 비바람과 천둥 번개로 단수와 정전이 계속되는 바람에 발전기까지 구입해야 했을 정도로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진지한 눈빛의 추장들과 함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20차 에델린의 귀한 열매들



*오직 구호품을 받기위해 추장학교에 참석예오던 중,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구호품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간증하고 있는 펠리시아(Felicia) 추장



*20차례 추장학교를 빠짐없이 참석한 추장과 함께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장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귀한 물질로 섬겨주시며, 단기선교로 파라과이를 다녀가셨던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년 전, 놀랍게도 추장학교가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되어 2주 동안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은 더해져서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었던 순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셨기에 기적적으로 20회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추장들이 변화되어 부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열매가 더욱 풍성하고 온전하게 맺힐 때까지 [파라과이 인디언 추장학교]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